美 이어 이란도 핵합의 탈퇴…핵위기 고조

"유럽 서명국들도 약속 안지켜"
4년만에 핵프로그램 재개할 듯
중동정세 급격히 얼어붙어

지난해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JCPOA)를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1년 만에 이란도 철수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2015년 7월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로 한동안 진정됐던 이란 핵위기가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재발할 가능성이 급속히 커졌다.

핵합의가 타결 4년만에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이 예정보다 이르게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다고 압박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과 같은 날짜인 8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합의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란은 미국처럼 일방적인 선언으로 핵합의를 탈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절차적,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합의의 기본 골격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짜였다.

미국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다 3일에는 핵합의에서 허용한 이란의 핵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의 행위조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란으로서는 핵합의의 이의 제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 실질적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란 언론에서는 또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동결한 원심분리기 생산 등 핵활동을 일부 재개하고, 한도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해 국제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을 뺀 나머지 서명국에 "이란은 최대한 인내했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상응해 핵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점차 줄이겠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란은 두 달간 두 단계에 걸쳐 핵합의 의무 이행을 감축할 것이다"라며 "은행 거래와 원유 수출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이란의 명확한 요구다"라고 전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를 유지하겠다고 이란에 굳게 약속한 유럽 핵합의 서명국(영,프,독)과 유럽연합(EU)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년여간 분기별 보고서에서 한 번도 빠짐 없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확인했음에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1년간 이란이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수차례 "유럽은 말로만 핵합의를 유지한다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라며 유럽에 요구했으나 유럽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1985부터 10년간 1조3천억 손실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 아니었다

NYT 납세자료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1억7천만달러(약 1조3천7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출판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서 출간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1985년 트럼프 대통령은 카지노와 호텔, 아파트 등 핵심 사업에서 4천610만달러(약 5천4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미 국세청에 신고했다.

1990년과 1991년에도 핵심 사업에서 각각 2천500만달러 이상 손실을 보는 등 거의 10년 내내 손실을 봤다. 이 기간에 8년은 적자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NYT의 이날 보도는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사업, 납세 문제 등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면서 대통령에게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으로 계속 맞서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1986~1988년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사업이 견딜 수 없는 부채로 인해 활력을 잃는 동안 기업 인수를 선언함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들이 그의 인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익을 토해내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 방문 돌연 취소 폼페이오
미군 주둔 이라크 깜짝 방문
"이란 위협 대응하기 위한 조치"

유럽순방 중에 독일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 국방부가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중동 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져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독일시간으로 이날 오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문 직전인 오전 '긴급한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전격 취소해 방독 취소 배경 및 행선지 등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그다드에 도착해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만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4시간 가량의 짧은 방문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라크 방문과 관련, 풀 기자단에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에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며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라호르 사원 앞 폭발 현장 8일 파키스탄 북동부 중심도시 라호르의 이슬람 수피(신비주의 분파) 사원 앞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날 수피 성지로 유명한 '다타 다르바르' 출입구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 이상이 사망하고 20명 가량이 다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왕자 책상에 흉기 둔 50대 "왕자에 흉기 휘두르려 했다"

일본의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히사히토(悠仁·13) 왕자가 다니는 학교 책상 위에 흉기를 둔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왕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도쿄 분쿄(文京)구의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부속 중학교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A(56)씨가 경찰 조사에서 "(히사히토 왕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이 학교 교실에 들어가 히사히토 왕자의 책상 위에 흉기 2개를 놓고 달아났다가 같은 달 30일 체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경찰 조사에서 천황제를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히사히토 왕자는 지난달 30일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손자이자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로, 왕실 전범에 따라 왕위 계승 서열이 아버지 후미히토(文仁)에 이어 2위다. /연합뉴스

도요타 연간 매출 30조엔 돌파…日기업 최초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8일 올 3월 결산 기준 연간 매출(2018년 4월~2019년 3월)이 전년 동기보다 2.9% 많은 30조엔 2천256억엔(약 3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이 30조엔대를 넘은 것은 일본 기업 가운데 도요타가 처음이다.

회사 측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확대가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그룹사인 다이하츠공업과 히노자동차를 포함한 도요타의 글로벌 판매 대수는 1.6 % 늘어난 1천60만3천대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 기간의 영업이익은 2.8% 늘어난 2조4천675억엔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순이익은 지분을 보유한 다른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24.5% 급감한 1조8천828억엔에 그쳤다.

한편 도요타는 내년 3월 결산 기준 연간 매출을 0.7% 감소한 30조엔으로 예상했다.

또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2조5천500억엔, 순이익은 19.5% 늘어난 2조2천500억엔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룹의 글로벌 판매 대수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천74만대로 잡았다. /연합뉴스

美 관세폭탄 위협에 中기업들 공장 동남아 이전 열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에 떠는 중국 수출기업들 사이에 동남아시아로의 공장 이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3천25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수출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위협에 기겁하는 모습이다.

광둥(廣東)성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글로리아 류는 "우리 제품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심했는데 착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중국 측에서는 이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은 2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